

“목포여행,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목포역 관광안내소 새단장... 외국통역원 배치

목포시가 최상의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새롭게 단장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관광객 200만명 목표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목포시는 그동안 관광객 맞이 위한 다양한 수용태세를 정비하면서 오기 좋고, 놀기 좋고, 쉬기 좋은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목포관광안내소는 서남권의 대표 관문인 목포역사내에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목포의 여행지 안내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 잡거리, 놀거리 등을 안내하며 여행 길잡이 역

할을 특색있게 왔다.

시는 이번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목포역 외부 광장으로 이전해 운영한다.

한국여행협회(KATA)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역관광안내소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목포역 외부에 관광안내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그동안 협소하고 불편했던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고, 관광객이 보다 쉽게 안내소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어,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비롯한 3명의 안내원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완도군·대우재단, 마음치유센터 조성 협약

노화읍에 도서관 건강돌봄센터 연계 문화예술 치유 공간 조성

완도군과 대우재단이 지난 27일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재단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도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완도군과 대우재단이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체결한 것으로 마음치유센터는 구 완도대우병원(노화읍소재) 부지에 조성된다.

협약으로 대우재단은 건물 일부 무상 임대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10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원하고, 아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투



입할 예정이다.

마음치유센터는 과거 완도대우병원 기숙사와 부속동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해 예술작품 전시 공간 및 작가들이 거주하며 창작할 수 있

는 레지던스가 들어서며, 예술작가 등 관계 인구 유입과 도서 지역 문화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돌봄센터와 마음치유센

터를 연계하여 주민 건강 돌봄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치유, 힐링 건강 축제와 연계한 섬 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 방지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도서 지역 복지 및 문화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 유출 감소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 치유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재단은 고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신안, 무주, 진도에 이어 1980년 노화읍에 완도대우병원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우재단은 외관심 의료 사업 외에도 대우학술총서와 아트선재센터 등 문화예술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도·이수지 기자

신안 홍도서 ‘섬 원추리 축제’ 열린다

내달 7~16일 개최

신안군은 한국인이 꼭 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홍도에서 ‘섬 원추리 축제’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열린다.

‘홍도원추리와 야생화를 만나다’란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홍도의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전 등이 진행된다.

‘홍도원추리’는 식물도감에도 등재된 육지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아름답다. 질감이 곱고 관상 가치가 뛰어나 야생화 식물로서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홍도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보릿고개 시절 홍도 주민들은 원

추리 잎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디어 냈으며, 원추리 꽃이 지고 나면 잎을 잘라 새끼를 꼬아 띠 지방을 만들고, 배 밧줄, 광주리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도구를 만들어 쓰면서 살아왔다.

천연의 신비를 간직한 섬 홍도는 천연기념물 제170호(1966년 지정)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년)으로 지정됐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 거리임에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홍도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홍도원추리 꽃과 아름다운 절경을 만끽하고 가족과 연인들이 행복을 증진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영암 혁신정책페스티벌,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다음달 3일 다채로운 공연·참여 행사... 민선 8기 혁신영암 메시지 전달

영암군이 다음달 3일 ‘2023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민이 발굴한 다양한 제안이 속의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는 축제의 장이다.

페스티벌 1부, 민선 8기 1주년 기념행사에는 ‘월출산 큰바위얼굴’의 사진가인 박철 작가의 특려권 기증식이 예정돼있다. 대한민국을 떠나며 영암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 위촉식도 이어진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에게 민선 8기 영암군정을 설명하고, 영암의 새로운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은 슬로건과 캐릭터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실시간 상품 판매 방식의 ‘라이브 커머스’를 채택한 이번 페스티벌에서 영암의 혁신정책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소개된다. 페스티벌 참여자 모두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QR 코드로 각각 정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대 행사로 ▲공직자 혁신소모임 혁신정책과 주민 지역발전 제안 전시

▲‘혁신수도’ 시행시 짓기 ▲멀티상영관 체험부스와 지역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팝페라 축하무대와 다솜합창단 공연 등도 열린다. 행사는 영암군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혁신 영암의 메시지를 전달 페스티벌에 많은 군민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혁신정책페스티벌은 영암군의 SNS로 홍보되고, 공공앱 ‘영암e랑’으로 만족도조사도 진행된다.

/영암·김영두 기자

해남,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해남군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이며,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KB손보, NH손보 등 민간보험 7개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군민들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상반기 ‘해피맘 출산교실’ 운영

임산부·영유아 다양한 정보 제공·영양관리 교육 등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해피맘 출산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출산교실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안정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신생아 건강관리,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인 모유 수유의 효과와 중요성에 관한 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천연 뜰살 오일·삼푸 만들기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임산부 요가 건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건강 정보 제공으로 임산부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피맘 출산교실은 임신·출산·양육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했다”며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발굴로 이어져 나가기 좋은 진도군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강진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 전국 공모

오는 9월 10일까지 추진... 곡당 최대 100만원 지원

강진군은 2023년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 전국 공모를 지난 26일부터 9월 10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과정을 없앤 이색적인 공모전으로, 제목 또는 가사에 강진의 역사, 문화, 시, 인물, 관광지 등 강진 관련 내용을 담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경우, 강진군과 후원 권 계약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여타 공모사업과는 달리, 강진군에서는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권만을 득하는 방식으로 창작자의 실연권 및 저작권을 보장한다.

‘음악으로 강진알리기 대작전’에 참여한 음악예술인들은 곡당 최대 1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지역문화활력축제 ‘병영의 B.A.M.’ 쇼케

이스 무대 초청 후보로 자동 선정돼, 대형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강진군청 음악도시 조성요원 이태경 차장은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음악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먼저 목적을 둔 실험적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술인의 눈으로 강진의 숨은 보석들을 발굴해, ‘마람에 가고 싶다’나 ‘여수 밤바다’와 같은 멋진 곡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My Bucket List


영암 관광지 추천

- ✓ 실제 서킷에서 레이싱의 열정과 에너지 느껴보기!
- ✓ 가족과 함께 물놀이 즐기!

-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인 트로트 역사 바로 알기!
- ✓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속에서 여행 즐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영암 월출산기린랜드



#월출산·기산윗길·구림전통마을

